

# 산정묘지

- 조정권

겨울산을 오르면서 나는 본다. 가장 높은 것들은 추운 곳에서 얼음처럼 빛나고,  
 얼어붙은 폭포의 단호한 침묵. 가장 높은 정신은 추운 곳에서 살아 움직이며 허열게 얼어터진  
 계곡과 계곡 사이, 바위와 바위의 결빙을 노래한다. 간밤의 눈이 다 녹아버린 이른 아침,  
 산정(山頂)은 얼음을 그대로 뒤집어 쓴 채 빛을 받들고 있다.

만일 내 영혼이 천상(天上)의 누각을 꿈꾸어 왔다면 나는 신이 거주하는  
 저 천상(天上)의 일각(一角)을 그리워하리. 가장 높은 정신은 가장 추운 곳을 향하는 법.  
 저 아래 흐르는 것은 이제부터 결빙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침묵하는 것.  
 움직이는 것들도 이제부터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노래가 되어 침묵의 동렬(同列)에 서는 것.

그러나 한 번 잠든 정신은 누군가 지팡이로 후려치지 않는 한 깊은 휴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리.  
 하나의 형상 역시 누군가 막대기로 후려치지 않는 한 다른 형상을 취하지 못하리.  
 육신이란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 것.  
 헛된 휴식과 잠 속에서의 방향의 나날들.

나의 영혼이 이 침묵 속에서 손뼉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한다면 어느 형상도 다시 꿈꾸지 않으리.  
 지금은 결빙하는 계절, 밤이 되면 물과 물이 서로 끌어당기며 결빙의 노래를 내 발밑에서 들려주리.

사람이 자기 속에서 생각나는 것을 말과 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잘 정리해서 좋은 것을 전  
 해주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글로 이루는 예술이라고 해서 문학이라고 하는데, 쉽게 글짓  
 기라고도 하지요. 줄거리가 있어 길게 써나가면 소설, 자기 생각을 쉽고 편안하게 주제에 따라 써나가면 수  
 필, 생각을 깊게 하고 짧게 정리된 말로 노래처럼 읽히게 쓰면 시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들이 읽고 느낄 수  
 있는 시는 특히 동시라고 하지요. 시 중에 아주 길게 쓰면서도 강한 힘을 느끼게 하는 시도 있습니다. 조정  
 권 선생님의 <산정묘지>는 좀 어렵긴 하지만 게으르고 약하고 평범한 삶의 모습을 언어의 힘으로 마치 꾸  
 짓는 것 같지요? 프랑스와 해외 문단에서 훌륭한 시로 평가받았고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소월시문학상”도  
 받은 시입니다. 하나의 제목으로 여러 편을 써나갔고 1편도 굉장히 긴 것을 앞부분만 써보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높은 것들은 추운 곳에서 얼음처럼  
 빛나고” 라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천천히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